

李灌鎔氏의 (唯物 批評 根據)의 (前言) 撤回를 要求하는 公開狀(二)

裴相河

그러나 本論에 있어서어는 枝葉 問題에 지나지 않는다. 根本 問題는 李先生이 나의 論文을 諒解하였다는 說明에 있다. 다시 말하면 이 證明으로 말미암아 李先生의 諒解와 讀者 여러분의 諒解를 풀자함에 있다. 李先生의 諒解 보담도 李先生의 『前言』을 읽으신 讀者 여러분의 誤解를 나는 더욱이 두려워 한다. 왜 그러나 하면 나는 李先生 한 분을 사랑하는 것 보담 讀者 여러분을 사랑하는 까닭이다. 李先生 한 분을 尊敬하는 것 보담 讀者의 여러분을 尊敬하고 시 끈까닭이다.

根本問題 卽 李先生께서 『非唯物的 哲學觀』이란 나의 論文을 誤解하였다는 證明 李先生의 『唯物論 批評의 根據』의 前言은 理解性없는 盲目的 獨斷이며, 矛盾의 羅列이라는 證明을 公開키 爲하여 于先便宜의으로 李先生의 『前言』을 轉□한다.

唯物論 批評의 根據

前言 日前부터 本報에 掲載되어 오든 裴相河君의 『非唯物的 哲學觀』이란 論文을 읽으면 唯物論이 얼마쯤 根據 업는 攻擊 - 이란 것 보다 誹謗을 마뎠다. 『流行 思潮』 『大衆的』 『功利的 唯物論者』等 文句를 羅列하여 그 論文에 보이는 것은 嚴格한 學究的 態度나 理論 鬪爭的 精神이 아니요. 單純히 皮肉的 誹謗 맞게 아모것도 업다. 나는 學者의 態度가 이래서는 조치안타는 거을 생각 할 새 唯物論이 맞는 學究的 攻學이 이리케 紹介 되어서는 唯物論에게도 不利하거니와, 反唯物 陣營에도 貢獻이 업을 것을 생각지 아니치 못하였다. 그러나 唯物論 批評의 根據를 여기 掲載하는 動機는 決코 裴君의 論文을 反駁함에 잇지 않는 것은 讀者, 諸位가 스스로 깨다르러니

와..... 云云

여기에서李先生께서는 『唯物論이 얼마쯤 根據업는 攻擊 - 이란것 보다 誹謗을 바뎠다.』고 했다. 그러치 만은 等者로서는 나의 『非唯物的 哲學觀』이 도리어李先生의 前言으로 말미암아 얼마 쯤 根據업는 攻擊- 이란 것 보다, 誹謗을 바뎠다고 할 수 잇슬 것이다. 웨그르냐 하면李先生께서는 等者の 該論을 『單純히 皮肉의 誹謗 맞게 아모 것도 업다.』고 하얏스니 果然 나의 論文이 皮肉의 誹謗맞게 아모 것도 업섯슬까? 萬若에 나의 論文에 皮肉의 誹謗아닌 根本的 무엇이 잇다고할 것 가트면 『單純히 皮肉의 誹謗 맞게 아모 것도 업다.』라는 文句는 도리어 自身이 根據 업는 攻擊이며, 理解性 업는 誹謗이라 할 수잇 지안홀까 單純히 皮肉의 誹謗 맞게 아모 것도 업다 함은 나의 論文이 徹頭徹尾 唯物論에 對한 皮肉의 誹謗, 다시 말하면 나의 論文이 어느 구석에서든지 唯物論에 對한 皮肉의 誹謗 안인 것을 發見 할 수 업다는 徹底論이 되지 안홀까 한다. 그러면 事實에 잇서서 나의 論文의 全體가 唯物論에 對한 皮肉의 誹謗이 옳든가, 적어도 그 論文의 焦點이 唯物論을 誹謗함에 잇섯든가? 筆者는 이 點을 闡明하기 爲하야 나의 論文의 中心이 무엇이든가를 여기 거듭 解說치 안흐면 안이 될 徹底한 必要를 느기는 바이다. 그리고李先生의 誤解 보담도 讀者 여러분의 誤解를 풀려면은 이 러케 함이 最上의 方法일 것 갓다.